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7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7 / 12



歸 鄉 (36x36-Acrylic on Canvas)

“바람이 지나간다. 무겁게 허리를 굽혔던 대숲이 일렁이면서 흩날리는 눈보라. 생물을 길어다 차를 달인다. 다료에서 솔바람 소리가 들린다. 혼자서 마시는 차를 이속(離俗)이라 하던가... 아, 은은한 차 향기를 그 누가 알까.”
 스님의 글을 음미하면서 당신의 뒷모습을 따라가봅니다.

고 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
古典을 읽다	11	간디에 맞선 인도 민중의 대부 「암베드카르 평전」
꽃은 흠에서 핀다	16	돌담
모단 에세이	18	꽃송이 같은 첫눈
공감으로 소통하십시오	20	알미운 단계
아름다운 마무리	24	12월 결연 대상자 - 김중진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작(산문)	26	저학년 산문 / 고희년 산문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8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274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8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 아팔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다.

글·법 정(法 頂)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께서는 알라비

나라에 있는 알라바카 야차夜叉의 처소에 머

물고 계셨다. 그때 알라바카 야차가 밖에서 돌

아오더니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문이며,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며,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또다시 알라바카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며,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시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며,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또 들어가셨다.

세 번째 또 알라바카 야차는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며,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시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며,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 또 알라바카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며, 나가주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더 나가지 않겠다. 네 할 일이나 해라.”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며,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 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은 대답하셨다.

“친구여,

신·악마·브라흐만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바라문·신·인간을 망라한 것 중

에서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 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그런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알라바카 야차는 다음의 시로써 말을 걸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善行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
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합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信仰)이 으뜸가는 재산

이다

덕행德行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넌

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청정해집니까?”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다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써 완전히 청정해진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구를 맺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총명하다면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구를 맺는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집에서 사는 사람(在家)
에게
성실과 자제와 견고와 보시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성실과 자제와 보시와 인내보다
더 나은 덕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물어보라.”

야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널리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내세에 이익 되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 깨달으신 분께서 알라비에 살러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를 하면
어째서 커다란 과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았
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으신 분과 진리의 뛰어난에 예배 드리면서.”

- 강론 -

믿음과 자기 확신을 가지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내리고 있다.
어느새 한 해가 또 지나가 버린다. 우
리에게 허락된 세월의 한 자락이 이
렇게 소멸되어간다.

월동 준비가 끝나고 나면 덧문을
닫고 이제는 안으로 자기 자신을 다
스리며 새봄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
어가야 한다. 밖으로 떠돌던 여로의
향向을 바꾸어 내면으로 돌아설 것
이다. 의타와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
나 자기 존재의 독립성과 새로운 가
능성을 거듭 실험하면서 안으로 다
지게 될 것이다.

이래서 겨울은 자기 자신으로 돌
아오게 되는 고마운 계절이기도 하
다. 안으로 거두어들임이 없다면 여
물지 않는다. 여물지 않은 빈 꺼풀을
가리켜 우리는 굳이 '사람'이라고 부
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의타와 의존이, 정신의 독립성을
지니려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해독

이 되는가를, 나는 최근의 몇몇 경험
을 통해 투철하게 확인한 바 있다. 계
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갖는 자기 존
재에 대한 확인은, 인간을 형성해 나
가는 끝없는 여로에서 볼 때 여러 가
지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야차와 부처님 사이에 주고받은
되풀이되는 문답, 즉 “나가주시오.”,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이런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 서너 차례씩이나 오고 가
는지. 세 번까지는 끈기 있게 야차가
시키는 대로 따르던 부처님도 네 번
째에 가서는 “나는 더 나가지 않겠으
니 네 할 일이나 해라.” 하며 단호히
거절한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두 번도 참
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씩이나
묵묵히 따라주는 부처님의 인내력
또한 대단하다. 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견디는 그 인내와 덕행에서 우
리는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이며, 어떤 선행이 안락을 가져오고, 맛 중의 맛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냐고 묻는 야차의 질문은 우리들의 의문을 대변해준다.

이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지혜의 말씀이다. 믿음(信仰)이 으뜸가는 재산이라는 것. 호화로운 저택이나 승용차,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것이 으뜸가는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라는 말은 자칫 관념적으로 들리기 쉽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볼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자기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소중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삶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온다고 했다. 덕행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확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에게 덕을 입히는 일이 선행이지

만, 어떤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덕행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물질이건 마음이건 무엇인가를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그 일이 곧 덕행이 되고 서로가 안락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인 경험이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에서 안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고, 안락 대신 불민과 불안이 따른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덕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는 곧바로 고쳐야 한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가르침이다.

진실이 맛 중의 맛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 될 거라는 가르침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삶의 교훈이다.

ית따라 내놓은 알라바카 야차의

적절한 질문은 우리에게 야차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켜 준다. 여기에서 야차는 악독한 귀신이기보다는 끝없는 선함을 추구하는 선신처럼 느껴진다.

이와 같이 스승(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앙으로써 생사의 격류를 건널 수 있고, 한결같은 꾸준한 노력(정진)으로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지런히 힘씀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써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청정은 곧 해탈과 열반을 뜻한다. 번뇌의 속박과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제기된 신앙과 정진과 근면과 지혜는 우리들 삶의 알맹이가 되어야 할 것들이다. 과연 지금의 나에게 그와 같은 신앙과 정진과 근면과 지혜가 갖추어져 있는지 어떤지, 경전을 대하는 이는 다 같이 돌이켜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경전에 나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전을 읽는 태도가 곧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라바카 야차의 물음은 집요하다. 그것은 곧 참을 깨내려는 구도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고 재물을 얻으며, 또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고 친교를 맺으며,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겠느냐는 물음.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만큼 아주 요긴한 내용이다. 일찍이 많은 성자들이 열반의 경지에 이른 그 도리를 확신하고 정진을 계속한다면, 바로 그런 열의에 의해서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열의가 있는지 어떤지 묻고 살피야 한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알맞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꾸준한 노력하면 누구나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성실을 다하면 그 이름이 드러나며,

무엇인가를 나누어 줌으로써 친구가 된다는 가르침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진리란 영롱한 데 있지 않고 보편 타당한 우리 일상 속에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

제가 신자들에게 성실과 자제와 견고와 보시,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이 다음 세상에서도 걱정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네 가지 덕 가운데 '자제'는 원문에 '진리'로 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자제'로 고쳤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바로 다음 구절에는 '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자제'로 나와 있으며, 또 네 가지 덕으로 볼 때 진리보다는 자제 쪽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남방의 경전 용어인 팔리어로 진리는 dhamma이고, 자제는 dama이다. 기록상 혼동할 수 있는 비슷한 용어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네 가지 덕 가운데 하나인 '견고는 불퇴전의 의지'이며 끝없는 인내이기도 하다. 어쨌든 성실과 자제와 보시와 인내는 우

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덕임에는 틀림없다. 성실성은 이웃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제력은 자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시켜 주며, 보시는 이웃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주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인내력은 삶의 의지력이기도 하다.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평범한 교훈을 통해, 우리들 생애의 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덕을 쌓았으며 어떤 관계를 이루어왔는지 한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침잠의 계절인 이 겨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 것인지도 함께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지의 봄은 계절의 질서를 따라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의 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 없이 찾아오지도 피어나지도 않는다. 이 겨울에 다가올 새봄을 생각해 보자.

간디에 맞선 인도 민중의 대부 『암베드카르 평전』

글 • 윤부혁(작가)

『암베드카르 평전』은 인도 사회의 최하층민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회개혁가이자 정치가인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다. 게일 움베트가 쓴 이 책은 '간디와 맞선 인도 민중의 대부'라는 부제가 들어있다.

'달리트'라고 불리는 불가촉천민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층인 카스트 '수드라'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불결해진다고 하여 차별을 당했다. 간디를 비롯한 힌두민족주의자들은 카스트 제도를 힌두교의 원리로 유지하면서 불가촉천민에

게는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듯 간디는 카스트 제도 철폐에 대해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암베드카르는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존재하는 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불가촉천민의 정당한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카스트 제도에 기반을 둔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도를 철폐하고 불가촉천민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국가 인도에서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 책은 인도 곳곳에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인 암베드카르가 활동하던 1940년대 독립 전후의 인도는 물론이고 현대의

인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1. 불가촉천민이라는 신분차별

암베드카르는 1891년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 주, 모우의 암바바데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도 카스트 제도상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영국 군대에 있었던 부모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생활을 했다. 1906년에 라마바이(Ramabai)와 결혼 후 29년만인 1935년에 사별하였고, 1948년 사비타(Savita)와 재혼하였다.

암베드카르는 1896년 이후 다폴리의 초등학교와 인도 국립고등학교를 다녔으나 불가촉천민의 신분이었으므로 온갖 멸시와 폭력, 인간적 수모를 겪었다. 1904년 아버지의 군 생활이 끝나자 가족을 따라 뭍바이로 이주하여 엘핀스톤 대학으로 진학했다. 대학에서도 차별은 계속되었고 그의 고민과 인격적인 모욕감

은 극심했다.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업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 진학 시험에 합격하였다.

1912년 대학 졸업 후, 사회사업가 켈루스카의 도움으로 바로다 주지사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장학금 지원이 만료되면서, 주립 장학금 혜택에 따른 조건대로 인도로 귀국, 주청의 공무원으로 10년간 봉직한다. 그러나 박사학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청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했다.

얼마 뒤 그는 주청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뭍바이로 돌아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힌두어로 출간하였고 뭍바이 시드넴 대학의 법학, 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된 뒤에도 귀족, 중인층 학생, 대학 내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신분차

별을 당했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그레이 법학원에 입학하였다. 1922년 법학원을 수료하고 영국변호사 자격과 런던 정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 힌두교를 중시했던 마하트마 간디와의 끊임없는 갈등

귀국 후 1923년 4월 다시 영국령 인도총독부의 공무원에 임용되었으나, 구 귀족층, 브라만 층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다시 사퇴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하층민의 무료 변론을 시작으로 인권 운동에 참여하였고, 1927년 불가촉천민들에게도 공용 식수시설 이용을 찬성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귀족, 브라만계열의 결사반대로 천민층이 식수를 마실 수 없게 되자, 약 1만 명의 불가촉천민을 이끌고 거리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신분제도를 명시한 힌두교 마누법전을 불태웠다. 이후 영국 원탁회의에 인도 불가촉천민 대

표로 참석하여, 불가촉천민의 분리 선거와 권익증진을 요구하였으나, 힌두교 교리를 중시하는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 좌절되었다.

1930년부터 1932년에 암베드카르는 영국, 인도 원탁회의에 인도 식민지의 불가촉천민 계층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때 그는 총독부와 영국 정부를 향해 불가촉천민의 힌두사원 강제노역 금지를 건의하고, 여성의 참정권 허용, 여성 교육 허용, 불가촉천민에게도 학교 진학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도 마하트마 간디의 국민회의파와 끊임없이 갈등하였다.

1935년 뭍바이 법과대학의 학장으로 초빙되어 2년간 재직하면서 독립노동당을 결성하였다. 군소 정당으로 출발하였으나 불가촉천민 및 평민들의 지지를 얻어 총독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그해, 첫 부인 라마바이가 오랜 병석 끝에 사망했다. 암베드카르는 죽은 아내 라마바이를 불가촉천민 등록대장에서

삭제해줄 것을 힌두교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3. 죽을 때는 힌두교도로 죽지 않겠다

이에 격분한 암베드카르는 올라선언을 통해 “나는 내가 원치 않게도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힌두교도로 죽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22개의 서약을 나열하고 신분차별이 없는 불교로의 개종을 선언한다. 달리트 인권 해방과 여성의 재산 상속권 주장, 이혼의 권리 주장, 가정폭력 반대 등의 권익증진에도 힘쓰며 하층민들의 교육을 위해 5개의 대학을 설립하고, 헌법개정을 통한 대학 입학 할당량 보장을 이끌어내었다.

1942년 인도의 영국총독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인도 독립시까지 재직하였다. 1947년 독립한 인도의 초대 네루 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인도 건국헌법 초

안적성위원회 의장, 인도 헌법기초위원장이 되었다. 그해 8월부터는 인도의 새 법전의 초안 및 편찬에 참여하였다. 인도 상원의원으로도 선출되어 민중들 곁에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붓다와 그의 법(法)>이라는 불교서적의 원고교정 작업을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신분제도는 불평등한 악법이라며 신분제도를 명시한 힌두교마누법전을 폐기했지만, 귀족, 브라만 층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마하트마 간디 역시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였다. 반대파의 압력에 의해 법안이 좌절되자 법무 장관직을 사임하였다.

4. 새로운 불교 운동

불교도가 된 그는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부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사회개혁의 새로운 대안과 이상으로 생각하여 불교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다. 신분제도에 구애되지 않는 새

로운 불교 운동은 그의 이름을 따서 ‘암베드카르 운동’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불가촉천민 차별이나 신분제도의 근원은 힌두교에 있다고 보고, 1957년 인도 나그푸르에서 수십만 명의 평민, 불가촉천민들과 함께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였다. 그해 10월 14일 광장에서 직접 지은 ‘22가지 서약을 외치고 그는 “나와 함께 불교로 귀의할 사람은 일어나서시오”라고 말하자 그 곳에 모인 평민, 불가촉천민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암베드카르의 서약을 반복하고 개종했다. 이후 하층민 사이에서 힌두교와 기존의 전통 종교, 토속신앙을 거부하고 불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5백만 명 가까이 불자가 증가하여 이를 불교 부흥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해 12월 6일 수면 중 갑자기 사망하였다.

12월 7일 파티이 해변에서 거행된 불교식 화장 장례식에는 약 70만 명의 추모객이 찾아왔다. 하층민 인

도인들은 ‘비바사헤브(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 그의 헌신적인 참여 인권 운동의 결과로 현재 불가촉천민 달리트들이 훗날 인도의 대통령, 하원의장, 대학총장, 정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생전에 인도 헌법 개정을 통한 인권향상에 힘써서 모교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그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개방 경제구조의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가하는 비열하고 천박한 보복에 실망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최근 들어 부쩍 커진 인도의 국제경쟁력과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도가 가진 국력 밑바탕에는 최하층인 달리트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책 『암베드카르 평전』을 읽으면 현대 인도의 명암을 되짚어 볼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돌담

글 • 김기철(도예가)

나는 곧잘 돌담을 쌓다가 죽겠다
고 지껄인다. 이 일은 흠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는다는가 화초나 농사
를 짓는 일 못지않게 나를 기쁘게 하
기 때문이다. 자라기는 서울서 컸지
만 벽촌 무지렁이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언제고 초라한 듯 어수룩한
돌담을 보면 가슴속 깊이 고여 있던
순박한 고향의 서정이 밀물처럼 밀
어닥친다. 그렇기에 어디 낫선 고장
을 가더라도 꼬부랑 할머니 등줄기
같은 돌담울이나 세상과는 담을 쌓
고 마냥 팔을 베고 누워 있는 것 같
은 산전 발담울을 만나게 되면 그토
록 마음이 푸근하고 편할 수가 없다.

사실 산간벽지의 흠과 물과 빛과

바람이 어떻게 내 속에 비집고 들어
와 피와 살이 났는지 증명할 길은 없
지만 적어도 나에겐 인간의 손길이
이룩해놓은 수많은 구조물 중에서
자연의 일부처럼 와 닿는 것은 이 산
전 발둑의 굽이굽이 쌓여 나간 돌담
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곡식
을 갈아 먹으려면 주워내도 주워내
도 한이 없는 그놈의 원수 같은 돌조
각들이 농사꾼의 눈물을 말리며 쌓
이고 쌓인 것이 바로 그 발담울이건
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한 생명이, 인간이, 예술이 태어나
자면 진통을 겪지 않고는 될 수 없
는 것처럼 이 발담울 역시 허구한 많
은 세월을 허리가 꼬부라지고 손발

이 닳도록 피땀을 요구했던 것이리
라. 나는 그 보잘것없는 돌팍 하나하
나가 한데 어우러져 그토록 부드러
고 자연스런 구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지 않을 수
가 없다. 요즘처럼 그렇게 피가 많고
기술이 좋은 세상에 가난의 흔적처
럼 가련한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을

그것이 우리의 지친 심신을 달래준
다는 것은 칼로 자른 듯한, 그리고
번쩍거리는 현대문명의 위력으로 추
켜세운 공룡 같은 축조물이 아니라
바로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
는 지극히 소박하고 미흡한 듯한 것
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철 • 자연에 대한 관심이 깊어 40대 중반 교직을 떠나 흠과 벗하는 삶을 선택한 그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보원요(寶元窯)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도자기는 주로
백자와 그 특유의 자연색 도자기인데 식물 잎사귀나 꽃, 열매, 물고기, 곤충 등 다양한 자연 소재
의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영 박물관을 비롯해 미국, 스웨덴 등 유수 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다.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2018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와 본모임 홈페이지(<http://www.clean94.or.kr>)에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인터넷)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꽃송이 같은 첫눈

글 • 강경애(소설가)

오늘은 아침부터 해가 안 나는지 마치 촛불을 켜 대는 것처럼 발갱게 피어오르던 우리 방 앞문이 종일 컴컴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문풍지가 우룽룽 우룽룽했다.

잔기침 소리가 나며 마음 갓던 어머니가 들어오신다.

“어머니, 어디 갔됐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치마폭에 풍겨 들어온 산뜻한 찬 공기며 발개진 코끝.

“에이, 춥다”

어머니는 화로를 마주 앉으며 부저로 손끝이 발개지도록 불을 해치신다.

“잔칫집에 갔됐다.”

“응, 잔치 잘해?”

“잘하더구나.”

“색시 고와?”

“쓸 만하더라.”

무심히 나는 어머니의 머리를 쳐다보니 물방울이 방울방울 서렸다.

“비 와요?”

“비는 왜? 눈이 오는데.”

“눈? 벌써 눈이 와? 어디.”

어린애처럼 뛰어 일어나자 손끝이 따끔해서 굽어보니 바늘이 반짝 빛났다.

“에그, 아파라, 고놈의 바늘.”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옥양목 오라기로 손끝을 동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늘은 보이지 않고 눈송이로 뽀하다. 그리고 새로 한 수숫대바자[대나무, 갈대, 수수깡 따위로 말처럼 엮은 율타리] 갈피에는 눈이 한 줍이나 두 줍이나 되어 보이도록 쌓인다.

보슬보슬 눈이 내린다. 마치 내 가슴속까지도 눈이 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듯 마는 듯한 냄새가 나의 코끝을 깨끗하게 한다.

무심히 나는 손끝을 굽어보았다. 하얀 옥양목 위에 발갱게 피가 배었다.

“너는 언제까지나 바늘과만 싸우려느냐?”

이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굴러 떨어졌다.

나는 싸늘한 대문에 몸을 기대고 어디를 특별히 바라보는 것도 없이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았다. 꽃송이 같은 눈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신동아〉, 1932년 12월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역음

강경애 • (1907~1943) 소설가. 황해도 송화 출생으로 장연에서 성장했다. 평양 송의여학교와 서울 동덕여학교에서 수학했다. 고난의 삶을 딛고 여성 운동과 소설 창작에 진력하다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회의식이 강렬하면서도 여성의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을 발표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원고료 이백 원〉 〈산남〉 〈소금〉 등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로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등이 있다.

알미운 단계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내가 고를 거야!”
 5살 딸아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유치원에 가기 위해 옷 갈아입자고 했더니 한 말입니다.
 “오늘은 옷을 네가 골라서 입고 싶구나?”
 “응, 내가 골라서 입고 갈 거야. 이 치마에 이 티셔츠 입고, 그 위에 지금 입은 뽀로로 잠옷을 입을 거야.”
 얇은 레이스 치마와 빨간 티셔츠를 들고, 입고 있는 잠옷에 그려진 뽀로로를 가리킵니다.
 놀란 표정으로,
 “뽀로로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구나?”
 “응! 친구들이 이 뽀로로 보면 좋아하겠지?”

“좋아하겠다. 그런데 엄마 의견을 말해도 될까?”
 “응, 의견 말해도 돼.”
 “이 치마를 입으면 추울 수 있고, 뽀로로 잠옷을 입고 유치원 가면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잠옷이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텐데, 그럼 기분이 어떨까?”
 “음... 괜찮아. 좋아하는 친구만 보여줄게.”
 “그래, 뭐라 해도 웃으면서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보여 줄 거지? 혹시 뭐라 하는 친구들도 보고 싶어 하면 살짝 보여주면 어때?”
 “응, 알겠어. 생각해볼게.”
 5살이 되자 유치원에 갈 때 옷 입

는 것으로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엄마가 공감 대화를 배워서 딸아에게 옷을 고르게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만 5일 내내 입기도 하고, 더운 날에 부츠를 신고 가고, 바람 부는 날에도 반팔을 입고 나서기도 했답니다. 답거나, 추울 거라고 말해주지만 의견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부츠 신은 날은 더위를 견디고 다녀왔고, 바람이 추웠던 날은 “많이 춥다... 해해, 옷 갈아입을래...” 하고 다시 들어왔답니다. 물론 스스로 고른 옷에 만족하여 가슴을 쪽 펴고 유치원에 간 날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공감 대화는 마셜 로젠버그 박사의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대화를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비폭력대화 책에는 타인을 의식하여 자신의 결정에 소극적인 ‘정서적 노예’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회복하여 가는

‘알미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합니다. 타인의 말과 의견을 무시하곤 합니다. 스프링이 눌러 있다가 놓아졌을 때 위로 솟구치는 것과 같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경험을 충분히 한 후에 ‘정서적 해방’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타인을 배려할 힘이 생기는 단계가 우리가 지향하는 ‘정서적 해방’ 단계입니다.

위 글에서 ‘알미운 단계’를 즐겁게 겪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엄마가 공감 대화를 잘하게 되자 딸아이가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부쩍 늘었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5살 딸아이와의 대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서적 노예’ 단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 자존감이 생기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 없이 로봇처럼 보호자가,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라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에 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내 외모가, 내 옷이, 내 물건 등이 나를 평가받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여 유난히 공을 들이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남을 외모로, 옷으로, 물건 등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입니다. 평가에 따라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처작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면 자존감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남들이 가는대로만 한 방향으로 약 20년을 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

게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의견을 말하게 하고, 존중하여 주고, 그 의견으로 결정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대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장난감 자동차를 자신의 방부터 거실까지 줄지어 늘어놓고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면 엄마가 해야 할 공감 대화는 무엇일까요?

엄마의 말: _____

공감대화 기본 공식은 내가 본 상황을 말한 후 느낌-바람-부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상-느-바-부라고 합니다. 또, 너-상-느-바-부(너의 입장에서의 상황-느낌-바람-부탁)를 말할 수 있습니

다. 엄마가 너-상-느-바-부로 말하면, ‘엄마가 이 자동차들을 보니까 걱정되네,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되거든. 다 놓고 깨끗이 치워줄래?’입니다. 하지만, 이 말보다는 너-상-느-바-부가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이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와, 이렇게 자동차를 늘어놓고 흐뭇하니? 멋진 작품을 완성했다고 생각해? 엄마가 치우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지?”라고 말하며 함께 흐뭇함을 공감하면 어떨까요?

겨울입니다. 달력은 한 장 남아 흔들거립니다. ‘일기일회’ 책에서 법정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다시 만날 수 없는 일기일회, 생애 단 한 번뿐인 날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18년 달력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1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달력을 12월 중순쯤 우편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매년 달력 발송시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거나, 달력 고리나 스프링 파손, 길상사와 중복된다는 등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모임에 후원하시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을 수신거부하신 경우, 달력 발송이 누락될 수 있으니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기에 1부만 증정하오니 너그럽게 이해바랍니다.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 창건 기념 법회(12월 17일), 동지기도(12월 22일), 신정, 설날 연휴에 길상사 종무실에서 배포하오니 길상사 행사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달력은 ‘제1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마음·세상·자연’ 사진 공모전 수상작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12월 결연 대상자 - 김종진

연꽃 같은 선행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종종 들려오는 선행 소식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14년간 재능기부를 이어 오며 연꽃 같은 선행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연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TBC(동양방송) 개그맨 공채 2기 출신으로 전직 대통령 성대모사나 특유의 만담이 매력적인 개그맨 김종진(예명 김민)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위트가 있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TV, 밤무대 등에

서 공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곧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사기당하고 난 후 스트레스로 당뇨가 왔고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으며 왼쪽 눈도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어르신은 방송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삶의 의욕을 잃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파고다(탑골) 공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노인들에게 즉석으로 성대모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많이 적적해하던 노인들에게 어르신의 개그는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어르신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부터 어르신은 평소 가깝

게 지내던 후배 연예인들과 함께 봉사단을 만들어 양로원과 복지관 어르신을 위해 위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올해까지 이어져 벌써 1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의 선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능기부로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어르신은 현재 장애와 경제적인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특별한 소득이 없지만 자식들이 있어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르신은 장애수당과 서울시 생계비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50만 원으로 반 지하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낙상사고로 고관절을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조금 절고 있

습니다. 다리도 문제지만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 섭취입니다.

어르신의 차이는 현재 뿌리만 남은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은 식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 연한 김치도 푹 삶아 죽처럼 만들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넘기다 보니 속도 늘 더부룩하여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어르신이 음식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틀니가 꼭 필요하며, 치과 진료 결과 임플란트 식립과 틀니 제작을 모두 포함하여 총 350만 원의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장애로 실의에 빠졌다가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이 어려움을 딛고 선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어린이들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알리고자, 지난 9월 24일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길상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11월호와 12월호에 나누어 운문 수상작과 산문 수상작을 수록합니다.

<저학년 산문>

장원(무소유상)

길상사 안에서

김수아 / 서울 은석초등학교 2학년

길상사에 도착하자마자 “췌! 잘 들어 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잠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니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일 큰 새소리가 들렸는데 조금 더 있었더니 또 다른 새소리가 들렸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서로 비비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기분이 편안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길상사에 올 때마다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요새는 꽃 사진을 찍으면 검색을 해주어서 오늘은 길상사에 있는 꽃 이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누란내풀, 은평의 다리, 참취, 삼지구엽초들이었는데 ‘이 꽃 이름들을 꼭 기억해야지.’하고 적어놓았다. 글짓기 전에 많이 걷고 구경하고 싶었다.

우리 학교의 연화 법당에서 나무 냄새가 나는데 아까 지나쳤던 극락전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다. 학교에서 법당에 갈 때마다 길상사가 생각날 것 같다. 내 바이올린 나무 향기를 맡을 때에도 떠오르겠지?

길상사 안에서 돛자리를 깔고 새소리를 듣고 있으니 깨끗이 시원해서 숨을 쉬는 게 편안하다. 그래서인지 글짓기가 더 좋아진 것 같다.

맑음상(차상)

존경하는 법정스님께

김규빈 / 서울 은혜초등학교 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초등학교에 다니는 규빈이에요.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무소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계속 계속 엄마, 이모께 질문했어요. “도대체 무소유라는 단어는 뭐예요?” 엄마께서는 “길상사에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길상사에 도착해서 법정스님이 머무르던 곳이지요? 거기도 가보았어요.

법정스님에게 하고 싶은 말도 노트에 적었어요. 부끄러우니 혼자 있을 때 몰래 읽으세요. 법정스님 유골은 좀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법정스님 유골 앞에서 반절을 해서 저도 앞에서 반절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보셨죠?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막상 스님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저의 학교생활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반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글씨를 예쁘게 쓰면 콩을 통에 넣어요. 콩을 통에 다 넣으면 칭찬파티라고 학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놀 수 있는 파티가 있어요. 저는 칭찬파티를 하기 하루 전날 친구들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올까? 그리고 나는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갈까? 깊은 생각에 빠졌었어요.

칭찬파티를 하고 있을 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장난감이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저는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사주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그날 이후로 그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럼 엄마는 그걸 또 사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는 필요 없는 장난감이 쌓였어요. 이걸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법정스님은 한 고무신으로 대학교 때까지 쓰셨죠? 저도 이제 법정스님처럼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엄마한테 조르지 않을 거예요. 물건을 절약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아하! 이제 무소유라는 단어의 뜻을 알겠어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무소유요? 저도 이제 무소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
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욕
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 거예요.

맑음상(차상2)

책장 넘기는 소리

신지민 / 인천 굴현초등학교 2학년

나는 소망초등학교의 2학년 1반 ‘박
독서’이다. 내 이름이 독서라 그런지 나
는 독서를 끄적어도 좋아한다. 독서를
하도 좋아해서 나는 별명이 독서왕이
다. 오늘은 짝을 새로 바꾸는 날이다.
새 짝이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다. 선
생님은 되도록 우리 마음대로 짝을 바
꿔 주시는 편이다. 저번, 나는 솔비와
짝이 되었다. 그때도 간신히 넘겼는데
나는 태호와 짝이 되기 싫다. 태호는
키가 전봇대만 하고, 피부는 또래보다
까무잡잡하고, 내 마음에 드는 아이는
아니다. 그때도 난 잘 움직여서 태호와
짝이 되는 고비를 넘겼다. 그래, 신태
호만 아니면 돼. 나는 한숨을 푸우푸우
내쉬며 등교했다.

“선생님 오신다야!” 가인이가 외쳤

다. 모두 자기 자리로 후다닥 달려갔
다. 선생님은 오늘따라 밝아 보였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시
자마자 짝을 바꿔 주셨다.

“자, 저번에는 번호 순서대로 바꿨지
만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꿀 거
예요. 칠판에 이름을 먼저 쓰는 순서대
로 짝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가장 먼저 칠판 앞에 도착했으
나 가장 짝이 되고 싶었던 수진이의 자
리를 빼앗기고, 민수, 솔진이의 자리를
차례로 빼앗겼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
이 번개처럼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결
국엔 태호와 나의 이름만 남았다. 그러
나 태호는 내 마음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벌쭉거리며 내 옆에 슬며시 앉았
다. 나는 실눈으로 태호를 흘겨보았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국어책을 펴서 가
장 인상 깊었던 글을 읽어 보라고 하셨
다. 후, 도대체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
는지. 솔비랑 짝이었을 때는 학교생활
이 알찼었는데, 태호가 짝궁이 되니까
학교생활이 무척 따분했다.

‘점심시간 놀이’는 점심을 먹은 후 책
을 읽거나, 공기놀이를 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태호를 도서관으로

데려가 물었다.

“태호야, 넌 왜 책읽기를 싫어하니?”

“책 속에는 검은 색 글씨들만 콧코
박혀 있잖아. 그 글씨들만 보면 읽을
맛이 안 나. 나는 책 읽는 것보다는 자
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미있어.”

“아니야. 책 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풍경, 소리, 자연을 느낄 수 있
단다. 책 속으로 들어가면 말이야, 실제
와 다른 세상이야. 더 많은 새가 지저
귀고, 훨씬 아름다운 주황빛 노을을 볼
수 있지. 책 속 세상으로 가는 건 쉽지
않지만, 막상 헤어나오려고 하면 그 속
에 더 있고 싶어져. 책을 꺼내서 한 번
읽어봐. 재미없어도 계속 읽으면, 너도
나처럼 푹푹해질 수 있어.”

“.....?”

“날 믿어. 초콜릿보다 달콤하고, 전
기 충격보다 짜릿한, 그런 세상이 널 기
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태호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
한다. 태호는 그곳에 있었다. 초콜릿보
다 달콤하고, 전기 충격보다 짜릿한 그
곳...

향기상(차하1)

독서

정진현 / 서울 우촌초등학교 3학년

독서란 참 재미있는 것이다. 독서는
작가와 같이 생각을 공감하는 것이다.
내가 독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것이다. 독서는 많은 이유로 하면 좋
다. 첫 번째, 자기가 몰랐던 지식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이 책의 주인공
이었으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책
을 다시 돌아보며 총정리를 할 수 있
다.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은 ‘43번지 유
령저택’이다. 한 시리즈인데 지금 6권
까지 만들어졌다. 책 제목이 ‘43번지 유
령저택’으로, 책 표지만 봐도 웬지 무서
운 유령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책표
지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 ‘43번지 유령
저택’을 진정하게 독서해야 된다. 그게
책들의 재미있는 점이다.

내가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까닭
은 실제로 오고 간 편지집이란 이유이
다. 하지만 진짜로 유령이 있나?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편지들만 진짜이지
유령은 진짜가 아니다.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아마 엄마가 날 데리고 도서관을 갔을 때일 거다. 4-6살쯤 한글을 읽을 수 있었으니 7살? 6살? 그 정도쯤에 읽었을 거다. 전에 말했듯이 독서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다. 그 중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한 50억 명이 될 거다. 하지만 몇 명이 한국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1억 명도 안 될 거다. 요즘은 세계적인 세상이고, 소통을 안 하면 우물안 개구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향기상(차하2)

사랑하는 아롱이

전우건 /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3학년

“야호! 방학이다.”

우리 가족은 봄부터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 아롱이는 어떻게 하지? 나는 고민이 되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아롱이를 큰엄마 댁에 맡긴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와 누나는 큰엄마 댁에 맡기는 게

너무 싫었다. 왜냐하면 장현이와 승주가 아롱이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이다. 장현이와 승주는 나의 사촌이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다. 큰엄마 가족도 여행을 가서 큰엄마 댁에도 맡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아롱이는 우리 친할머니 댁에 맡겨졌다. 아주 조금 안심이 된다. 우리 친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강아지를 잘 돌보신다. 우리 가족은 안심을 하고 휴가를 갔다. 그리고 휴가 3일째에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친할머니께 전화가 왔다. 아침 10시에 아롱이를 잃어버렸다고……. 우리 가족은 밥을 먹다 말고 나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의정부로 갔다. 우리 가족은 아빠 빼고 울면서 아롱이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롱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튿날부터 우리 가족은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또 붙이고 그리기를 이틀 반복하고 드디어 아롱이를 찾을 수 있었다. 아롱이를 찾을 때 학교에 있었던 나는 기쁜 소리에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아롱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들을 가족이 아닌 그냥 애완동물로 생각하지만 동물들도 우리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이번 일을 겪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아롱이는 나의 가족이다. “아롱아! 사랑해!”

향기상(차하3)

알록달록 꿈의 세계

김현영 / 남양주 구룡초등학교 3학년

꿈은 어린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꿈은 상상이라는 문의 열쇠 같은 것이다. 꿈에는 색은 없지만 각각의 개성이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꿈은 바뀌고 또 바뀌지만 언젠간 자기 자신에게 딱 맞는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나는 현재 꿈이 많다. 첫 번째는 요리사이다. 그 이유는 내가 멋지게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참 뿌듯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술 선생님이다. 그 이유는 나

는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미술인 이유는 내가 만드는 것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골프선수이다. 그 이유는 자세도 멋있고, 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업이 아닌 소원과 같은 것이다. 바로 네 번째 꿈은 숲 속 작은 오두막에서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원래 내가 생각하는 꿈의 뜻은 바로 직업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깨달았다. 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웬지 오늘 꿈이 하나 더 생길 것만 같다. 바로 글짓기 선수이다. 아니면 소설가도 되고 싶다. 아! 맞다! 또 하나 더! 바로 지혜로운 스님이다. 그 이유는 평범한 것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나의 글의 총결론은 꿈이라는 구덩이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덩이를 팔 땀 생각이라는 삼으로 파는 것이다. 나는 미래가 기대된다. 이유는 나의 미래 꿈, 즉 1개의 꿈이 무엇일지 궁금하

기 때문이다.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말고,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가

만히 기다리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고학년 산문>

장원(무소유상)

무소유의 의미

정영학 / 경기 조현초등학교 5학년

무소유란 무엇일까?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소유의 의미가 그것 밖에 없을까? 욕심을 가지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지내는 것? 그 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소유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욕심이 없어도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욕심이 인간의 일부분일 테니까 욕심을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다.

법정 스님은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아서서 무소유를 실천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 무소유를 실천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나

의 일부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는 나를 다스리려고 노력중인 것이다.

반딧불이가 성충이 되어서 먹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슬이다. 성충이 되면 이슬만 먹기 시작한다. 이슬만 먹으면서 힘차게 날아다니고 환한 빛을 낸다. 그렇게 밝은 빛을 내는 힘은 맑은 이슬을 마시며 무소유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덕분이 아닐까?

반딧불이는 법정 스님을 닮은 것 같다. 무소유를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니까. 사람들도 법정 스님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며 법정 스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노력하고 있다. 나도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했지만 업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모두 이렇게 노력하면 사람들 모두가 반딧불이를 닮아갈 것이고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맑음상(차상)

특별한 나눔

전유정 /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5학년

그는 사고로 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의 꿈은 화가인데, 엄지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누군가가 손가락을 기부하여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누가 중요한 엄지손가락을 기부하여 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고 희망을 잃어가는 찰나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엄지손가락을 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고마웠는데, 기부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손가락 이식수술 후 그에게 손가락을 기부해주시는 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암에 걸려서 고통 받고 계신 34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는 3년 뒤 29살의 젊은 나이로 아주 훌륭한 화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한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세가 98세입니다. 그분은 48년을

혼자 외롭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이 독거노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땡땡’

“계세요~ 여기 김움자 님 댁이에요?”

“맞는데 뉘신지요?”

“저는 전송장입니다. ‘행복한 추억 나눔 캠페인’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데 그러시우?”

“독거노인 캠페인이예요.”

그 뒤 문이 벌컥 열렸는데, 할머니의 표정은 밝은 햇님처럼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를 타고 할머니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동료들과 독거노인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할머니께서는 표정이 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집에 도착하고 3일 후에 할머니께서 “나에게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눠주어서 정말 고맙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꼭 갚고 잊지 않겠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처럼 나눔은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를 행복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난 나눔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맑음상(차상2)

맑고 향기롭게 살기!

김예원 / 서울 은혜초등학교 5학년

올해 여름방학, 친척언니, 동생들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흥국사 템플스테이 2박 3일 체험에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2박 3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캠프과 이어,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54배, 발우 공양 등에 참여하며 사찰 체험을 했다. 또, 불교 동요(연등 들고 춤을, HUG, 108배) 3개도 배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체험은 54배, 명상, 발우 공양이었다. 첫째, 명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서 졸렸다. 둘째, 발우 공양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단무지로 그릇을 닦아서 먹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서 힘들었다. 셋째, 54배는 하고 나니까 팔, 다리가 쭈서서 너무 힘들었다. 사찰 체험을 하고 난 뒤의 느낀 점은 단체생

활을 하니까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 학교에서도 모듬활동을 할 때 양보를 하고 배려,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의견이 금방 모아져서 금방 끝나는데, 욕심 부리고 양보와 배려를 하지 않으면 모듬원 끼리 협조가 안 될 것이다. 사찰 체험에 다른 친구들도 가봤으면 좋겠다. 산 속에 있어서, 서울 도시와 달리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노는데 핸드폰을 보지 않고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싸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혼자만 생각하고 욕심내고 양보, 배려를 안 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남자애들이 사찰 체험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덜 싸울 수 있을 거다. 우리 모두 맑고 향기롭게 살면 더 행복해지고 화를 낼 일이 별로 없다. 그럼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향기상(차하1)

오늘의 행복

김지원 / 서울 길원초등학교 5학년

행복은 무엇일까? 단지 기쁠 때만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행복이란 걸까?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행복이란 게 밥 먹듯이 찾아오는 건 아니니깐.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나는 오늘 행복한가?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놀러다니는 것이 참 좋은 행복 중에 하나라고 본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보다 더 아름답고, 자신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 예쁜 꽃도 보고 조용히 앉아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으로 보인다. 행복은 참 소중하고 그만큼, 또 가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인생은 참으로 너무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행복이 필요할 때는 찾아올 수가 없지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이 우리

곁으로 와서 사람들이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 나 자신에게 오늘의 행복은 무엇일까? 자꾸자꾸 질문하게 된다. 또 행복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행복하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그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행복한 것이다.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이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바람을 느끼며 오늘의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난 이렇게 엄마와 밖으로 나와서, 조용하고 예쁜 절에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식히러 돌아다니는 즐거움이 오늘의 행복이라고 본다.

엄마는 오늘 나에게 행복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참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각자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는 것이 행복의 비법이 아닐까? 나뭇잎처럼 많은 날이 내게 남아있다. 내일도 행복해야지!

무소유의 향기로운 행복

최지유 / 서울 돈암초등학교 6학년

나는 오늘 길상사를 처음 방문했다. 처음 온 곳이지만 절을 한가득 메운 풀내음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8년 전이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쏘아~하며 후두둑 떨어지던 빨간 낙엽들을 난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장난감이나 인형이 있어서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여서 행복했던 때. 8년 전이지만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엄마와 함께 개운산 벤치에 누워 떨어지는 낙엽 비를 맞던 추억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기억이다.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추억은 따스한 물결이 되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손끝을 부드럽게 간질이는 바람, 감동적이며 활기찬 생명의 기운을 한껏 전해주는 풀과 나무, 숨처럼 보드랍고 따스하게 발을 감싸주는 흙의 감촉과 때론 차

갑고 따뜻하게 온몸에 기운을 실어주는 공기 등 자연의 힘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쁨이다. 어떻게 보면 짧지만 나의 13년 인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시간은 4학년 때였을 것이다.

네팔에서 살고 있는 사쉬카 쿠마리와 결연을 맺은 우리 반은 학급 모두가 고사리 손으로 모은 파지를 팔아 사쉬카를 후원하여 주었다. 우리나라와 많이 떨어진 먼 나라이지만 사쉬카 쿠마리와 편지도 주고받으며 짜릿한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쉬카 쿠마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전해 받으니 내 마음속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길상사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자연의 맑은 향기로운과 8년 전 추억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 사쉬카 쿠마리와 마음으로 소통하며 배웠던 나눔의 기쁨을 통해 나는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삶이 진실된 무소유의 삶을 뻗속 깊이 깨달았다.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 삶이 아닌 욕심을 버리면 찾아오는 풍요로운 마음을 항상 가지며 살아가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무소유

조민지 / 서울 을지초등학교 4학년

내가 처음 무소유를 듣고 생각난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떠올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필요한 일을 할지 궁금했다. 그러다 법정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를 읽게 되었다. 그 책을 읽고 나는 무소유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불필요한 것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법정스님의 사진을 보고 조금 간간하고 엄격한 분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쓰신 책을 읽으며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처음 보는 순간부터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책에서는 항상 절약하시고 무소유를 철저히 지키셨다. 나는 특히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너무 존경스럽다. 나라면 절대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정스님께서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며 검소하게 지내셨다. 나도 그분의 무소유 정신을 본받고 싶다. 그러면 나도 검소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책의 독자로서 스님을 존경한다.

나는 지금까지 무소유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지우개는 있어도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왔다. 그것은 낭비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가지면 물건에 얽매인다. 책에서 읽은 내용처럼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닌, 반대로 그 물건이 내 기분을 마음대로 하는 주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 지우개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더라도 하면 속상하고 계속 걱정이 되었다. 앞으로는 내 물건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하여서 검소하고 낭비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무소유에 대해 생각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무소유는 꼭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무소유는 간단한 일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물건이다. 지나치지 않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무소유라고 생각한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17년 중앙모임의 여러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욕심내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자연을 아끼고, 욕심을 줄이면서 이웃과 더불어 실천하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이 되도록 뜻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 사업

①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2017년 12월 통권 274호 발행 / 월 평균 10,000부 발간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외 교도소, 군법당, 병원, 복지시설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소식지 발송 정기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연꽃 스티커 배포

-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를 전국 사무국과 길상사 진영각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한글판, 영문판 제작 / 2017년 15,000부 배포)

③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길상사 일요특강)

- 3월 26일. 강병인 글씨 예술가
- 4월 23일. 김태영 전 국방장관

- 5월 28일. 김성태 캘리그래퍼 작가

- 6월 25일. 김주용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원

- 8월 27일. 허성원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10월 22일. 김병식 초당대 명예총장

- 11월 26일. 고현희 공감대화 개발원장

④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개최

- 우리 시대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 입적 7주기를 맞아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산에는 꽃이 피네'를 2월 26일 오후 2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중환 시인을 필두로 왕성한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 함민복, 박형준, 박소란, 함명

춘 시인 참여, 폴란드에서 '2016년 올해의 책 (재와 빨강)'으로 선정된 편혜영 작가, 시낭송가 정인성, 이찬희 회원이 찬조 출연하여 법정 스님의 저서 '산에는 꽃이 피네'를 낭독하고 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시인별로 자신의 창작시를 낭송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마음·세상·자연 사진 공모전 개최

- 길상사를 중심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도님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봉사자의 맑고 향기로운 모습, 길상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 나무 등으로 이뤄진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남기는 뜻으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211명의 참여와 총 585점의 사진이 출품되었습니다. 출품된 사진은 전문가 심사위원과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게 심사하여, 9월 24일 본선 11명, 입선 3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작은 2018년 달력 디자인과 월간 '맑고 향기롭게' 표지 디자인으로 활용됩니다.

⑥ 무소유 문예 공모전 개최

-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 능력을 고취시키고 법정 스님의 아

름다운 글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9월 24일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82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저학년, 고학년, 산문, 운문으로 나누어 10월 29일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⑦ 맑고 향기롭게 심볼,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판매

-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브랜드 포교 활성화, 문화상품 시범 개발 및 의류리폼, 천연화장품 사용 증대를 위해 길상사 내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녹색 나눔 장터'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에 재환원하고 있습니다.

⑧ 맑고 향기롭게 대의원총회

- 2017년 3월 3일 정기 대의원 총회(32차)를 개최하여 2016년 사업 결과, 결산 및 2017년 사업 계획,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⑨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앱(APP), SNS 홍보

- 법정넷과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개편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과 스님의 글,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⑩ 소모임별 간담회 진행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여러 봉사활동 모임인 반찬 나눔 봉사팀, 전화 말벗 봉사팀,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진인요양원 봉사팀, 의류 리폼 봉사팀, 소식지 발송 봉사팀, 청소년 봉사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⑪ 법정 스님 진영각 관리

·법정 스님 진영각을 관리하고, 맑고 향기롭게 간행물과 연꽃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⑫ 문화행사 및 홍보활동

·부처님오신날에 친환경 체험마당, 맑고 향기롭게 홍보, 길상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대학생 지원 사업이어서인지, 많은 참여는 없었지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대학생 자원활동과 연계하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⑬ 복지시설 정기 방문 자원활동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 어르신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진인 노인요양원
 -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청소 및 주방 봉사, 오후: 어르신 놀이 활동
- 월곡청소년센터
 - 청소년 이용시설, 방과 후 교실 운영 재정 및 물품후원

- 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
- 현재 480가구 및 단체 1곳 지원
- 분기별 농협상품권 가구당 3만 원권 지급
- 연 3회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특별 후원
- 3월~11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

⑭ 연말 김장 나눔

- 11월 30일,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덜어준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약 2,800여 포기 김장을 담아 480가구에 각 15kg 씩, 노인, 시각장애인,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에 전달하였습니다.

세상 사업

①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사업

- 총 45명(수도권 29명, 광주 6명, 전남 1명, 전북 1명, 대전 1명, 경남 2명, 대구 3명, 부산 2명) 장학생 선정 / 수업료, 학교운영회비 전액 지원
- 4월 14일(금) 길상사 설법전에서 장학증서 전달식 진행
- 1994년 ~ 2017년 장학사업 : 총 644명의 중·고등학생 / 총 지급액 : 약 9억 5천여만 원 (1994년 ~ 2005년까지 총 24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006년 ~ 2017년까지 395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②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진행

·대학생들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선행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을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화여대·연세대 연합 봉사 동아리 '나누미'가 기획한 '나눔 공부방' '소망 탁아방 아동들의 인성개발 프로그램'과 경희대 봉사 동아리 '미라클'이 기획한 '동대문구 저소득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선정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였습니다.

④ 정기 방문 복지시설 '나눔 행사' 개최

- 서울노인복지센터
 - 10월 23일,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하는 나눔 공양 진행, 어르신 식사 대접 및 후식으로 백설기, 과즙음료 후원
- 진인 노인요양원
 - 11월 11일,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잔치'로 사물놀이, 웃음치료, 노력봉사 활동 및 어르신 생활실 물품 후원

⑦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 (관등) 운동

- 법정 스님께서 초창기 맑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펼치시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등 밝히기 운동을 되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⑤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 매주 목, 금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

⑧ 전화 말벗 정기 활동

- 반찬 지원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게 봉사자가 매주 1회 이상 전화하여 건강 및 안부를



문고, 말벗을 해드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5월 10일 ~ 26일 말벗 봉사자가 독거노인 54가정에 방문하여 찹쌀을 전달해드리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드렸습니다.

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 진행

•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특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사무국에서 전화 및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대상자로 연계하였습니다.

⑩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진행

•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하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⑪ 다음 카카오킷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캠페인

• 매월 아름다운 마무리 선정 대상자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같이가치'에 모금함을 개설하였으며, '네이버-해피빈'에서 온라인 모금을 전개하였

습니다.

⑫ 동전 모금 캠페인 진행

• 가정이나 회사 서랍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모아 빈곤층 노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길상사 방문객들에게 동전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모금을 전개하였습니다.

⑬ 청소년 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청소년과 독거노인이 결연을 맺어 자발적인 정기 방문을 통해 청소, 말벗, 산책 등의 재가봉사활동 진행하였습니다.

⑭ 월곡청소년센터 위탁 운영

•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공부방)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문화,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부설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 예능,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월곡청소년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⑮ 정기 재정 후원 사업

• 부름의 전화(중증 장애인 이동 지원 봉사단체) 정기 후원
• 서울지방법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자연 사업

① 숲기행 - '숲과 시골 마을의 정취를 찾아서' 진행

• 4월에서 10월 둘째 토요일에 정기 숲기행을 진행하였으며, 11월 10일은 본 모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② 천연화장품 만들어 쓰기 강좌

• 천연화장품(로션, 에센스, 스킨) 및 천연 세제(삼푸,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강좌로서,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세계일화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③ 의류 재활용 리폼 활동

• 기증받은 헌 의류, 불량 및 자투리 원단, 한복 천으로 매주 화요일 봉사자들이 세계일화실에서 가방, 소품, 잡화 등을 만들어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녹색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④ 녹색 나눔 장터

• 길상사 경내 '맑고 향기로운 가게' 개점 이후, 미니장터를 탄력적으로 열어 친환경 용품, 리폼한 상품, 천연화장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을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 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모임 임기제 대의원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모임 정관과 중앙모임 운영규칙에 따라 본회 목적과 뜻에 공감하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순수하게 동참할 수 있는 회원으로, 2018년 2월 대의원총회 개최일부터 2020년 2월 대의원총회 전일까지 활동할 임기제 대의원을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신 분으로 세무사, 회계사, 수행과 NGO 활동, 사회복지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추천 및 지원 자격은 중앙모임 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추천)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피선거권(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방문
- 추천 및 지원기간 : 2018년 1월 20일까지

매통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

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의미 있는 자원활동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원들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실 뜻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통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은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매통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매통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매통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7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 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약 5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매통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말벗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 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서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매통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매통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 : 12월 17일(일) 오전 11시 / 극락전

<세상을 매통 향기롭게>

- 매통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 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6일)/오후 1시 30분/다라니 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녀와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6, 23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일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 농협 029-01-199412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결식아웃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벗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말벗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후원 : 농협 932-01-002933 /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숭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지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7회차 기도가 10월 2일(월)에 입재되었으 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추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2월 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입재

- 일시 : 12월 2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2월 2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12월 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2월 9일(토) 오후 8시 00분 ~12월 10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2월 1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길상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

- 일시 : 12월 17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2월 1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지기도

- 일시 : 12월 22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신정 합동 차례

새해, 2018년 1월 1일을 여는 신정 합동차례를 마련합니다. 부처님 전에서 향 사르며 조상님께 맑은 차로써 공양 올리는 것으로 새해를

여시기 바랍니다. 신정 합동 차례는 당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에서 마련됩니다. 동참하실 분은 종무실로 신청바랍니다.

12월의 길상사 정기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추계관음기도 회향	12/1(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2월 2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 입재	12월 2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2월 2일(토)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5일(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12월 9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관음재일	12월 11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길상사 창건20주년 기념 법회	12월 17일(일)	오전 11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12월 18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지기도	12월 22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법정 스님의 인도기행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길상사 - 인도, 네팔 부처님 8대 성지 순례」

인도는 광활한 대지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나라다.

나는 시절 인연이 오면 다시 인도에 가서 또 다른 인도의 모습 앞에 마주 서고 싶다.

그래서 인도가 지닌 진짜 얼굴을 찾아냄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해 보고 싶다.

- 법정 스님 「인도기행」 서문에서

- 일정 : 2018년 1월 9일(화) ~ 1월 20일(토) / 10박 12일
- 동참금 : 285만원(카드결제 가능, 계약금 30만원)
- 모집 인원 : 30명
- 여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바이살리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필라바스투 - 스라바스티 - 렉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델리 - 인천
- 항공편 : 아시아나 항공
- 여행사 : 금강투어
- 추가 문의 및 접수 : 길상사 종무소(02-3672-5945)
- 길상사 홈페이지 내용 참조 및 종무실내 안내 책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20주년 기념 법회

12월 17일(일) 오전 11시 / 극락전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런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 法頂 -

날로 각박해지고 메말라만 가는 세상을 향해 삼각산 자락에 향 사르며吉祥의 문을 활짝 연 지 어느덧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길상사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상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를 창건일에 가까운 일요일 12월 17일 극락전에서 봉행합니다. 인연있는 모든 분께서는 수희동참하시어 길상사의 내일을 맑고 향기롭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창건 기념 법회 후에 2018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